

축사 2008.10.12.

여성회 30주년 잔치에 구 회원으로 축사를 해 줄수 있냐는 총무단의 요청에 나는 지금까지 생각 저 멀리에 묻어두고 살아왔던 지난 몇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그렇게 하겠다고 별 생각없이 간단히 회답을 보낸 것이 5월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월인 지금까지 무의식 속에 묻어 두었던 몇가지 단어들이 계속 나를 짓눌러 오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구 회원“, „축사“ 라는 단어가 „30년“, „여성회“ 라는 단어와 함께 나를 무척이나 혼란속으로 빠트려 버렸습니다.

스무살 혹은 서른살 청춘에 독일에 와서 한국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제대로 맛보지도 못한 여러 분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이른 나이에 독일에 와서 어떤 부분은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 속에 나의 성장을 멈추어 버린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말하자면 축사는 어른들이, 혹은 무엇인가 이루어 놓은 조금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한번도 나와 깊게 연관지어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 많은 우리 여성회원들 처럼 나도 „축사“라는 짧은 한 단어에 매달려 몇 달을 고민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독일에 온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부터 시작된 나와 여성모임과의 만남 속에서 한번도 내가 구 회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적이 없었고, 이미 흘러간 옛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모임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에게 구 회원이라고 분명한 단어로 자리매김을 해주었고 나는 미적이고 있던 시간들 사이에서 나의 위치를 재발견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성 모임은 나에게 쉽게 떠날수 없는 긴 끈을 데고 있었고 나또한 그 끈을 잡고 살아 온 것입니다.

그 미묘한 나의 감정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었듯이 또한 여러분들이 저를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어느 사이에 중년이 되어 있었고 우리의 만남은 어느듯 30년이란 세월이 흘러 버렸습니다.

빈손으로 독일땅에 와서 언어도 통하지 않을뿐 아니라 이곳의 생활 방식도 모르던 우리들은 독일의 경제침체로 인하여 외국인 간호사 송환 문제가 대두되고 우리의 생존권이 침해된다고 생각 되어질때 주저않지 않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도 모른채 소리치며 우리가 살고있는 이땅, 이 독일 사회와 맞서서 싸웠습니다.

한국사회의 인권과 노동자들의 아픔이 있을때 이미 여러가지 아픔을 맛본 우리들에게는 너의 것과 나의 것이 구분되지 않았고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우리의 분노로 변하여 온몸으로 외치며 승리하여 왔던 것입니다.

사회가 변해 왔듯이 그동안 우리들 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성 모임에서 함께 눈물 흘리며 분노하고, 손잡고 기뻐했던 사랑하던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서 서로의 상태를 무언중에 눈빛으로 확인하며 남은자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고 우리가 생활전선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 해 왔듯이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힘들지만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조금은 너그럽게 그들과의 시간을 만끽하며 어느듯 넉넉하고 멋진 여인들로 변해있는 여러분들 을 오늘 또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성모임은 지금 가장 열기가 왕성한 30이라는 나이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슬기로운 지혜와 쉽게 부러지지 않는 강인함으로 무장된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롭게 모임을 이끌어 왔듯이 앞으로도 이 외국땅에서 화해와 평화를 수놓는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부드러운 어머니로, 똑심있는 뒷배경으로 자리 잡으며 모두를 아우르는 참 으로 모든이의 화평이 되는 모임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한나